

# 잠재계층분석을 활용한 중장년층 귀농준비 유형 및 특성 분석

정성지\*

오하이오주립대학교 오하이오교육연구센터 박사후연구원 (Page Hall 1810 College Road Columbus, OH 43210)

## Identification and Exploration of Middle-Aged Adults' Agricultural Entrepreneurship Preparation Patterns using Latent Class Analysis

Seong Ji Jeong

Post Doctoral Scholar, Ohio Education Research Center, Ohio State University (Page Hall 1810 College Road Columbus, OH 43210, USA)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lassify agricultural entrepreneurship preparation patterns for middle-aged adults and to explore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and agricultural entrepreneurship related variables. The result of the study follows: first, agricultural entrepreneurship preparation patterns were divided into three types of urban-born farming, rural-born farming, retirement farming. Second, these pattern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level of demographic and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Third, these patterns also showed considerable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level of agricultural entrepreneurship expectancies, agricultural entrepreneurship volition, and agricultural entrepreneurship barriers. Based on the results, diversified agricultural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s and support measures were suggested.

**Key words:** agricultural entrepreneurship, agricultural entrepreneurship preparation pattern, middle-aged adults, latent class analysis

### 1. 연구의 필요성

중장년층 가운데 귀농·귀촌은 퇴직 후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과 함께 중장년층의 귀농·귀촌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19). 이와 함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도시의 지속가능성 위협, 어메니티와 로컬 가치의 재조명 움직임은 중장년층의 귀농·귀촌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고 있다. 최근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에서 대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74년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61.6%가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맹대환, 2022). 주요 이유로는 정서적으로 여유로운 삶(61.3%), 깨끗하고 아름다

운 자연환경(33%),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와 스트레스(31.1%) 등으로, 중장년층이 지닌 긍정적인 농업농촌에 대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중장년층의 귀농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는 데에는 주된 일자리의 퇴직을 앞두고 생애 전환을 경험하는 중장년층의 특성이 건강, 환경, 로컬 공동체 등의 가치를 향유하는 귀농·귀촌의 특징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정성지, 2021). Bures (1998)에 따르면, 후기산업사회 중장년층은 주된 일자리를 퇴직하고 자녀가 독립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주나 전환에 대한 선택이 자유로운 편이다. 또한 어렸을 적 농촌에서 지냈던 경험과도 연관이 깊다(Stockdale, MacLeod, & Philip, 2013). 이들은 자연환경과 농촌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공유하고 있으며,

주요어: 귀농, 귀농 준비 유형, 중장년, 잠재계층분석

\* 교신저자(정성지) 전화: +1-614-247-9295, e-mail: jeong.419@osu.edu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공동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방면에서 기여하고자 한다(Stockdale, & MacLeod, 2013). 그러한 점에서 농촌사회는 중장년층의 다양한 수요와 특성을 포용할 수 있으며, 퇴직 후 경제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대다수 중장년층에 농업활동을 통해 경제적 소득뿐 아니라 일에 대한 자율성, 가치 및 의미를 가져다줄 수 있다.

귀농과 관련된 연구는 귀농의 역사적 고찰 또는 향후 귀농 전망(김정섭, & 김종인, 2017; 마상진, & 박대식, 2019), 귀농 교육 효과성(박유순, & 최은수, 2017; 정성지, 2021), 귀농 동기 유형화(마상진, 2018; 유학열, 2011; 이민수, & 박덕병, 2012), 귀농 결정 영향요인(우성호, & 이성근, 2015; 최돈우, 김동춘, 이항아, & 임청룡, 2019), 귀농 적응 및 역귀농(윤순덕, 최정신, 마상진, & 남기천, 2017; 마상진, 2016; 정성지, & 마상진, 2021) 등이 존재한다. 이 가운데 귀농준비 유형을 분류하는 연구는 개별 행위자의 특성을 이해하거나 귀농 행동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왔다. 대표적으로 귀농 유형은 지역(I형, J형, U형)이나 귀농 동기에 따라서 구분된다. 예를 들어, 동기에 따른 유형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동기(가계재생산)와 비경제적 동기(생태적 가치, 건강, 자녀교육 등)로 구분된다. 경제적 동기에 해당하는 유형으로는 전업귀농형(유학열, 2011), 경제생계형(김철규, 이해진, 김기홍, & 박민수, 2011), 경제목적 귀농인(송인하, 2013), 생계형, 경제형(마상진, 2018) 등이 있다. 한편, 비경제적 동기와 관련해서는 은퇴귀농형(유학열, 2011), 은퇴전원형(마상진, 2018), 생태가치 귀농인(송인하, 2013), 노후휴양형(유학열, 2011), 전원형(이민수, & 박덕병, 2011)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분류는 각 유형에 따라서 귀농인의 계획 및 준비 과정과 지역사회에 정착 및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이한 양상과 행태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편, 앞서 언급된 귀농 유형 연구는 연구자가 이론적 배경과 연구자의 관심사에 따라 분석 틀을 고안하여 연구대상을 분류하는 연역적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귀농 유형에 대하여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분류틀을 선택하기에 다각적인 시각과 해석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다소 제한된 요소로 구성된 분석틀을 사용하기에 귀농교육 프로그램 설계 시 중장년층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현재 대다수의 중장년 귀농교육은 은퇴(60대 대상) 또는 전직(40-50대 대상)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귀농귀촌종합센터, 2022) 그 외에 학습자의 수요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출발점 수준, 가용 자원, 귀농계획의 구체화 정도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귀농을 목적

으로 하는 중장년층은 이주뿐 아니라 영농활동을 포함한 경제활동을 계획하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 영농 기술, 작목/품목 관련 지식, 토지, 자금, 인맥 등의 자원과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귀농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귀농 준비에 필요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들의 개별적인 필요를 다룰 수 있는 개입 방안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종의 유형화 기법인 잠재계층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중장년층의 귀농준비 유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귀농준비 및 귀농유형 분류와 관련된 이론적 고찰을 기반으로 하여 귀농준비 지표틀을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중장년층의 귀농준비유형을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출된 귀농준비 유형에 따라서 중장년층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직업적 특성, 귀농 인식 특성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응답자 중심의 접근법을 통해 도출된 중장년층의 귀농준비 유형은 향후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귀농 정책 지원책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함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2.1. 중장년층의 귀농

현대사회에서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이동 추세를 통해 귀농의 흐름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두 차례의 봄이 존재한다. 1990년 말 외환위기 이후 귀농의 수요가 급증하였는데, 이는 주로 도시에서 실직되거나 해고된 경제활동인구가 경제적인 이유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농촌으로 이동했던 현상으로 해석된다(마상진, & 박대식, 2019). 한편, 2010년대 이후 다시 주목받고 있는 귀농의 흐름은 보다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는데, 2000년대 말 금융위기뿐 아니라 건강, 생태, 먹거리에 관한 관심, 로컬과 어메니티에 대한 가치, 소비적인 삶의 패턴에 대한 반성, 대안적 삶의 의미 추구 등이 다양한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다(정성지, 2021).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귀농 현상이 주로 40대에서 60대 사이의 중장년층에서 많이 보고되고 있다는 점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21).

일찍이 서구에서는 중장년층의 이도향촌 현상에 대하여 은퇴전환(retirement transition)이라는 용어로 논의되어왔다(Bures, 1997; Stockdale, 2006). Bures(1997)는 미국 80-90년대 중장년층(pre-elderly)에게서 나타나는 이도향촌 현상이 이들의 성장배경과 생애 단계와 관련이 깊다고 보았다. 이들은 청년층과는 상이한 이주 패턴을 보이는데, 무엇보다 퇴직과 자녀독립으로

인해 생계에 대한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으로, 이들의 고려사항은 노동과 고용이라기보다 은퇴 이후 노후에 관한 관심에 가깝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 가운데 어렸을 적 농촌에서 성장한 경험이나 사건, 장소에 대한 애착 등 농촌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도 농촌으로의 이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고려사항이다 (Stockdale, & MacLeod, 2013). 그 외에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공동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방면에서 기여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Stockdale, & MacLeod, 2013) 또한 중장년층의 농촌에 대한 선호와 관련이 깊다. 최근 국내에서 발견되는 중장년층 귀농의 움직임은 이러한 움직임과도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다(정성지, 2021).

우리나라 귀농인의 현황을 살펴보면, 귀농가구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약 1만 2천 명 정도가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21). 귀농 인구 평균 연령은 55.3세로, 전반적으로 40대-60대의 연령층이 80%를 상회한다. 구체적으로 연령층에 따라서 구분해보면, 2013년에는 50대 4,077명(40%), 40대 2,348명(23%), 60대 2,186명(21%) 순으로 많았으나, 2020년도로 오면서 50대 4,402명(35%), 60대 4,084명(32%), 40대 1,791명(14%) 순으로 나타나 귀농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포착된다. 60대의 비중이 증가함과 동시에 40대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50대와 60대의 비중이 점차 유사해지고 있다. 중장년층 가운데서도 50대와 60대에 걸친 중후반 장년층의 귀농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출신 지역에 따라서 귀농인의 유형을 살펴보면 귀농인 대부분은 농촌 출신으로 구성된다.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 생활 후 고향 연고지로 귀향하는 U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57.5%), 2018년도 수치(53.0%)와 비교했을 때, U형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그 외에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 생활 후 비연고지로 이동하는 J형이 21.1%, 도시에서 태어나 농촌으로 가는 I형은 21.2%를 차지하고 있다. 귀농을 선택하는 주된 이유는 자연환경에 대한 선호(30.5%), 농업의 비전 및 발전가능성(23.0%), 기업승(13.1%), 가족 및 친지 등과의 거주(11.6%), 도시 생활에 대한 회의감(8.5%), 건강상의 이유(7.8%) 등으로 분포하고 있다. 귀농인의 평균 귀농준비 기간은 약 2년(25.8개월)으로 귀촌인의 준비기간보다 긴 편인데, 이는 농촌으로의 이주뿐 아니라 영농활동을 포함하는 귀농이 농업 특수적인 기술과 지식, 귀농에 필요한 자본과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귀농인 가운데 준비기간 동안 교육을 이수한 비율은 약 47.7%로 절반가량이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교육 미이수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귀농인 대다수는 먼저 가구주 혼자 이주하는 경향이 포착된

다. 귀촌 가구와 비교했을 때, 최초 이주 당시 1인 이주의 비율은 귀촌 인구(14.1%)에 비해 귀농 인구(26.5%)가 2배 가량 높다. 1인 이주를 택한 이유는 가구원의 직장(40.0%), 자녀교육(25.4%), 주거와 농지 등 영농기반 준비할 시간 확보(17.2%), 가족 반대(11.2%) 순으로 가족 구성원과의 조율 또는 영농기반 준비로 요약될 수 있다. 귀농 가구 절반 이상이(50.1%) 농외 경제활동을 겸업하고 있는데, 주된 이유로는 소득을 올리기 위함(84.2%)과 재능을 활용하기 위함(7.7%)으로 나타났다. 한편, 귀촌인이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14.7%인데, 50대-60대 집단에서는 그 비율이 18.7%로 가장 높아 중장년층이 귀촌한 후에도 농업에 종사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요약했을 때, 귀농인은 귀농을 준비하는 동안 가족 구성원과의 입장을 조율하고 영농활동을 위한 기술과 지식, 물질적인 자원을 확보하려 하기에 귀촌인에 비하여 준비 기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된다. 이들은 귀농 후 주소득원이 영농활동이나 가계소득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 외 소득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에 정착하고 적응하는 과정 또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2.2. 중장년층의 귀농 유형

많은 연구에서는 귀농 유형을 출신지와 정착지 귀농의 주요 동기, 영농형태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다(이정관, 1998; 박공주, 2006). 먼저, 출신 지역과 정착 지역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법은 전통적 인구가동 유형을 응용하는 방법으로 출신 지역이 농촌 지역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개인의 이동 패턴을 그려낸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류는 U턴, I턴, J턴으로, 일본 구 노동성이 1972년에 발간한 노동백서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어 줄곧 농업·농촌 정책과 연계되어 활용되어 왔다(박시현 & 최용욱, 2014). 구체적으로 U-turn형은 고향인 농촌에서 거주하다가 학업, 취직 등의 이유로 도시로 이동하여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J-turn형은 농촌 출신이지만 도시로 이주하여 살다가 고향이 아닌 다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I-turn형은 농촌 출신이 아닌 도시 주민이 농촌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박공주, 2006; 마상진 & 김강호, 2014; 마상진 & 남기천, 2015).

귀농 유형은 귀농 동기에 따라서도 구분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이주이론에서는 이주의 동기를 기존지역에서의 거주를 저해하는 압출요인(pushing factor)과 타지역으로의 이주를 하도록 촉진하는 흡입요인(pulling factor)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접근한다(Hoffman et al., 2019). 귀농·귀촌 동기 또한 농촌에 대한 흡입요인과 도시에 대한 압출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귀농의 흡입요인으로는 건강, 은퇴 후 여가생활, 조용한 전원생활, 농사일에 대한 선호, 생태·공동체 등의 가치추구, 농업·농촌에 대한 비전과 일자리, 부모님의 영농승계 등이 있고, 귀농의 압출 요인으로는 도시 생활에 대한 회의감, 도시의 높은 생활비, 실업이나 사업의 실패, 정신 및 신체 건강에 대한 염려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다음으로 귀농 유형은 개인 성향이나 가치 등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다. 베이비부머 퇴직자들의 귀농·귀촌 준비 과정을 현상학적으로 연구한 김은석, & 하지영(2016)은 이들의 귀농·귀촌 동기와 준비 과정을 도피형과 도전형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도전형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커리어에 대하여 높은 만족감과 자부심이 있으나 퇴직을 계기로 도전적인 일을 선호하며 지역 사회 기여, 봉사 등의 보람된 일을 추구하는 편으로, 직업과 자신에 대한 성찰이 새로운 기회인 농촌에 대한 이상과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과 결정으로 이어진다. 이들은 특히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커 퇴직 후 인맥, 교육과정,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귀농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도피형은 기존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고, 퇴직 후 구직활동 과정에서 실패 경험을 통하여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인식하고 귀농·귀촌을 준비한다. 이들은 도전형 집단에 비해 상황에 의존적인 경향이 있어 귀농·귀촌에 대한 준비가 선제적이거나 적극적이지 못한 편이다. 김은석, & 하지영(2016)은 도전형과 도피형이 지닌 성향, 상황 대처방식, 가치관 등을 고려하여 귀농준비를 위한 전직 과정이 각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귀농유형은 개인이 추구하는 경제적 상황이나 일자리 상태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다(김철규, 이해진, 김기홍, & 박민수, 2011; 이민수, & 박덕병, 2012; 마상진, 2018). 중장년층 가운데 이전 일자리로부터 전직하여 귀농을 직업으로 삼으려는 중장년층과 정년퇴직 후 은퇴하고 농촌으로 이주하는 중장년층의 특성은 매우 이질적이며, 이러한 이질성이 귀농을 준비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확인된다(송인하, 2013). 주된 동인으로는 경제적 동기가 크게 작용하는데, 가계비 충족을 위해 소득 활동을 지속하려는 데서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전직 중장년층의 경우 귀농을 제2의 일자리로 생각하여 이를 통해 소득활동을 지속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의 이전 일자리는 공식적인 부문보다는 비공식적인 부문에 속해있을 수 있고, 완전 은퇴자와 비교하면 연령이 낮고 비전문직에서 일하며 조기퇴직이나 비자발적

은퇴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은퇴 후 도시에서 안정적 직업을 얻기 어렵다는 점, 퇴직 후 취직을 해도 일용직이 대부분이라는 점, 은퇴 후 취업에 따른 근무만족도가 낮다는 점 등에서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생활하기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귀농을 선택하는 특징이 있다. 이같이 경제적 동기로부터 비롯된 귀농 유형은 영농기반을 기준으로 기업가형, 소규모창업형, 영농승계형으로 구분된다(이민수, & 박덕병, 2012). 또는 가계재생산의 사급성에 따라 생계형과 경제형으로 구분되기도 한다(마상진, 2018).

반면 경제활동을 종료한 은퇴자의 경우 퇴직금, 연금, 저축, 부동산 임대수입 등으로 가계생활비가 충당되어 소일거리 이외에 농업과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 경우 은퇴전원생활형(마상진, 2018), 은퇴귀농형, 노후휴양형(유학열, 2011), 내지는 전원적 삶 추구형(이민수, & 박덕병, 2012)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은 대부분 연금, 퇴직금 등의 자금이 충분하거나 이전 일자리가 전문직일 가능성이 크고, 정년퇴직 시기에 근접하므로 나이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농업 활동에 종사하더라도 경제적 목적이라기보다 주로 건강상태나 연명, 은퇴 후 여가생활을 위한 비경제적 목적이 강한 특성을 보인다(송인하, 2013). 개인의 생활상 편의와 효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김철규, 이해진, 김기홍, & 박민수(2011)는 이러한 집단을 개인생활효용형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대인가치추구형은 비경제적 목적이 강하나 경제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유형은 생태가치귀농인(송인하, 2013), 농촌지향형(유학열, 2011) 또는 대인가치형(마상진, 2018)과도 겹칠 수 있다. 이들은 경제적 효용을 넘어 농촌사회의 공익적 기능과 대인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으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농촌공동체의 의의, 자연생태계 보존을 중시한다. 또한, 자신의 귀농·귀촌 사건을 소속한 마을 공동체의 발전과 연결짓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김철규, 이해진, 김기홍, & 박민수, 2011). 구체적으로 생태 공동체의 소박한 삶을 추구하거나 도시에서의 삶을 벗어나 전원생활을 지향하거나 대안적인 삶을 실천하려는 사람들이 이러한 대인가치추구형으로 분류된다(<표 1> 참조).

한편,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EU에서는 신규 농업 2012년 농업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혁신 파트너십을 구성하여 신규농업을 지원하고 있다(EU, 2022). 여기서는 신규농업인의 형태를 승계농(inheritance), 조기은퇴(early retirement), 신규농(ex novo, 농업에 대한 선행 경험이 없는 집단으로 주로 청년층 분포)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들을 위한 다각화된 지원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다(Sutherland, 2015). 이를 기반으로 Dobryagina

〈표 1〉 출신지 및 동기에 따른 귀농·귀촌 유형 분류

구분	선행연구	정의
출신지에 따라	서규선, & 변재면(2000)	U턴(계획적 U턴 귀농인*, 추출된 U턴 귀농인**), J턴, I턴, S턴***, X턴****
	박공주(2006) 마상진 & 김강호(2014) 농림축산식품부(2021)	농촌출신 고향귀농(U형), 농촌출신 타지역귀농(J형), 도시출신 귀농(I형)
동기에 따라	강대구(2007)	농촌생활선호, 이상추구, 사업실패, 도시생활문제, 퇴직, 영농승계, 건강문제, 기타
	이민수 & 박덕병(2012)	기업가형, 소규모창업형, 전원형, 영농승계형
	유학열(2011)	농촌지향형, 은퇴귀농형, 전업귀농형, 노후휴양형, 도시출퇴근형
	김철규 외(2011)	경제생계형, 가치추구형, 생활효용형
	송인하(2013)	경제목적 귀농인, 생태가치 귀농인
	김은석, 하지영(2016)	도피형, 도전형
	마상진(2018), 정성지 & 마상진(2021)	은퇴·전원형, 대안가치형, 생계형, 경제형

\*일시적으로 도시생활을 하다가 부모님 은퇴 또는 결혼 후 귀농, \*\*비교적 장기간 도시에 정착하다가 예상치 못한 사건(건강, 실직 등)으로 인해 귀농, \*\*\*특정 귀농지에 정착하지 못하고 타지로 반복 이동, \*\*\*\*귀농지-도시-타귀농지- 도시 등으로 반복 이동

(2019)는 결정이론(decision theory)을 통해 각 유형의 잠재적 진로 결정 및 경로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예를 들어, 승계농의 경우 이들의 의사결정 과정은 기존 농업을 유지하거나 다음 단계의 기업이 정신의 농업으로 이동하는 이분형(binary) 형태를 지니지만, 조기은퇴형과 신규농 집단의 경우 다차원적인 의사결정 양상을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조기은퇴형의 경우 건강, 심리적 문제, 개인적 관심사, 자연환경 선호 등이 농업을 시작하는 주된 고려사항으로 작용하며(Ferrel, 2014; Theline, & Holmberg, 2010), 신규농 집단의 경우 청년층으로 구성되기에 자유에 대한 갈망이나 자기 실현에 대한 욕구가 크고 보다 다양한 경력 경로가 주어질 수 있다(Dobryagina, 2017; Ranyard, 2005). Dobryagina(2019)는 비승계농 집단(non-hereditary entrepreneurs)인 조기은퇴형과 신규농집단은 새로운 기술, 지식, 혁신을 가져오기에 농촌지역개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귀농 시작 단계와 과정을 연구한 Bosworth, & Finke(2020)는 귀농을 기업가적 측면(rural entrepreneurship)과 사회적 측면(counterurbanization) 측면에서 문헌을 고찰하고 두 개념을 통합하여 상업적 반도시화(commercial counterurbanization)라는 개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명한 바 있다. 여기서 그는 개별 행위자가 지역 선택에 있어 농촌성(rurality)을 중시하는가(농촌의 편의성 또는 필요성) 그리고 농촌에서 경제활동 의도가 있는가(경제활동 목적 또는 거주 목적)의 두 축을 사용하였는데, 이 축에 따라 상업적 반도시화는 4가지 분류가 가능하다. 첫째, ‘농촌의 편의성-거주목적 분류’에 속하는 경우로는 은퇴자나 통근자로 가사노동이나 파트타임에 종사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농촌의 필수성-거주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농촌 생활방식(rural lifestyle)을 중시하며, 사회적 기업이나 지역사회 고용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이 두 분류가 향후 농촌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인프라나 네트워킹 목적으로 농촌에서의 경제활동(entrepreneurs in the rural)에 종사하거나(‘농촌의 편의성-경제활동 참여’) 농촌 지역사회에 내재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귀농인(rural entrepreneurs)으로 나아갈 수 있다(‘농촌의 필요성-경제활동 참여’). Bosworth, & Finke(2020)는 도시민의 귀농을 농촌성과 경제활동이라는 두 축으로 분류하여 구분하되, 각 유형 사이에 잠재적인 경로(route)가 있음을 인지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에 정착한 귀농인들이 어떻게 긍정적 농촌성을 향유하면서 지역사회와 경제에 혁신과 변화를 가져오는지 설명하고 있다.

### 2.3. 중장년층 귀농 준비 유형에 따른 특성

일반적으로 귀농 탐색이나 준비 단계에서의 유형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귀농 준비 과정과 정착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김철규, 이해진, 김가홍, & 박민수, 2011; 송인하, 2013). 귀농 유형을 경제생계형, 가치추구형, 생활효용형으로 구분한 김철규, 이해진, 김가홍, & 박민수(2011)의 연구에서는 귀농·귀촌형태, 학력, 연령, 직업형태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귀농·귀촌 형태에 따라서는 경제생계형과 생활효용형의 경우 농촌 출신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U턴형이 많았고, 가치추구형의 경우 도시 출신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I형이 유의미하게 많이 분포하는 편이었다. 학력에 따라서는 가치추구형의 경우 대졸이상이 지배적인 반면, 경제적 동기나 생활효용형의 경우 고졸이하 응답자가 많은 편이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생활효용형, 가치추구형, 경제생계형 순으로 연령이 많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영농

형태에 따라서는 경제적 동기의 경우 전업농이 압도적이나, 가치 추구형의 경우, 전업농, 겸업농, 비농업직이 고루 분포하고 있었으며, 생활효용형은 전업농과 무직이 압도적이었다.

귀농·귀촌 동기 유형별 영향 요인을 분석한 마상진(2018)의 연구를 살펴보면, 성별, 연령, 결혼여부, 이전 직업, 이전 사회경제적 지위, 귀농·귀촌 준비기간, 귀농·귀촌 이동패턴, 귀농·귀촌 시기 등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은퇴전원형의 경우, 청년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사회경제적으로는 상위층이고, 귀농·귀촌 준비기간이 길며, 연고지가 없는 농촌으로의 귀농하는 경우에서 많이 나타났다. 대안가치형의 경우, 연령층이 적을수록, 기혼보다는 미혼일수록, 화이트칼라나 블루칼라보다는 직장근로를 하지 않을수록, J턴과 I턴일수록 대안가치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생계형과 관련해서는 연령이 높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으며, 타향으로의 이주를 선택하거나 귀농·귀촌 준비 기간이 짧을수록 생계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경제형과 관련된 특성으로는 가족과 동반하거나 고향으로의 귀농 패턴(U-turn형)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박공주(2006)는 귀농유형을 U턴, J턴, I턴으로 구분하고 해당 유형에 따라서 일반적 특성 및 귀농 인식 특성에 대한 차이분석을 시도하였다. 일반적으로 성별, 연령, 건강상태, 이주전 직업유형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교육수준과 가족유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U턴과 J턴은 고졸 이하가 많이 분포하였으나 I턴에서는 대졸 이상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또한, U턴의 경우, 경제적 여건이 주요 이주 계기로 작용한 반면, J턴과 I턴의 경우 이주 지역이나 주변 친인척과의 관계에 대한 선호 및 건강상의 문제가 주를 이루었다. U턴과 J턴은 농촌과 영농 경험과 농촌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은 편이나 I턴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주자금과 관련해서는 I턴형, J턴형, U턴형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로 보아 농촌 출신인 J턴과 U턴은 귀농을 준비함에 있어 농촌에서의 생활 경험과 생활사정을 충분히 지각한 상태에서 적은 이주자금을 가지고 귀농을 시작하는 반면, I턴은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이주자금을 투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귀농인의 농촌사회 적응 과정을 생태 목적 귀농인과 경제 목적 귀농인을 비교 분석한 송인하(2013)는 두 유형이 직업력, 귀농 과정, 지역사회 적응 등에 걸쳐 두드러진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생태가치 귀농인의 경우 도시 문명에 대한 회의, 기존 직장 생활 경험에 대한 불만족, 자율성과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욕구가 높은 편으로 주로 고학력이면서 전문직에 종사

하는 경우가 높은 편이었다. 반면, 경제 목적 귀농인은 단순노무직, 제조업, 자영업 등에 종사하다가 해고 또는 폐업을 경험하였으며 이에 귀농을 통해 가계재생산과 소득창출을 목표로 두고 있었다. 그는 목적에 따른 귀농 유형의 차이가 정착하고 적응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경제 목적 귀농인은 가계재생산이 유리한 곳을 선택하며, 고향으로의 귀농은 가족 및 친인척의 영농 기반을 활용하여 과거의 인맥을 복원하는 합리적 선택지로 작용한다. 반면, 생태가치 귀농인은 귀농을 생태가치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기에 고향으로의 귀농보다는 유사한 가치와 이념을 지닌 지역으로의 이주를 선호한다. 또한, 이들은 농업농촌을 직업적 차원이나 농촌환경 및 사회적 요소들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농촌생활적응에 보다 유리한 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해진, & 김철규(2013)는 가치지향적 귀농인이 민주적 의사소통을 지향하여 농촌마을의 공동체성을 높이고, 외부와 연결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농촌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반면, 송인하(2013)는 경제목적 귀농인은 경제적 성공을 성공적인 귀농의 삶으로 보지만 농업소득 구조의 대내외적 취약성으로 인해 가계재생산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귀농·귀촌 적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증거는 양적인 방법을 활용한 실증 연구에서도 발견된다. 정성지, & 마상진(2021)은 비경제적 동기를 추구하는 대안가치형과 은퇴전원형의 경우 농촌사회 적응과 긍정적인 관계를 보이지만, 경제적 동기를 추구하는 경제형과 생계형 집단은 농촌사회 적응과의 관계가 부적이거나 관계가 없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특히 대안가치형의 경우 타 유형과 달리 직업만족을 통해 농촌사회 적응이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했을 때, 귀농 유형은 귀농인의 출신지, 정착지, 가치, 경제활동, 귀농 준비 여건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유형에 따라서 귀농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의 양상이 서로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 3. 연구 방법

#### 3.1. 연구 대상

이 연구의 연구대상은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로, 구체적으로는 귀농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중장년층 성인이다. 연령상으로는 만 40세에서 65세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대부분의 청년 관련 농업 지원 사업이 만 40세로 두고 있으

며(농림축산식품부, 2022), 귀농이라는 선택이 직업 활동을 포함하기 때문에 노년기의 건강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상한선을 고려하였다. 귀농교육과정은 민간 차원과 정부 및 공공기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대다수 교육과정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문화정보원과 지자체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 등을 중심으로 실행되는 귀농교육과정으로 제한하였다. 응답자 가운데 귀농뿐 아니라 귀촌 준비자도 포함될 가능성이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응답자가 참여한 귀농교육은 일정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중장기 귀농교육과정으로 이들의 귀농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중장년층 귀촌인은 향후 5년 이내 농업활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타 연령대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농림축산식품부, 2021) 이들 또한 농업과 관련된 일 또는 활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표집과 관련하여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라는 모집단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비확률표집을 활용하여 해당 모집단의 특성에 대한 비율을 활용하는 할당 표집 방법을 적용하였다. 할당표집은 모집단 특성의 비율을 근거로 응답자를 할당하여 연구대상을 선정한다. 이 연구에서는 기관 유형 비율과 참여자 연령대 비율을 할당 영역으로 결정하였다. 농림식품문화정보원과 농업기술센터의 교육 참여자 비율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확인하였으며 연별로 귀농교육 참여자를 계산했을 때, 농정원, 수도권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비수도권 농업기술원/센터의 비율을 3:2:5로 추산하였다. 다음으로 연령대 비율을 추산하기 위하여 귀농·귀촌 실태조사 자료를 확인하였을 때 40대와 50대, 그리고 60대의 비율을 약 2:5:3으로 구성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2021). 자료 수집은 해당 비율을 고려하여 협조가 가능한 귀농교육 운영기관에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조사도구를 온라인 및 우편으로 배포하였다. 설문 기간은 2021년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 진행되었다. 총 570부를 배포하였으며, 이 중 541부가 회수되었다(94.9%). 회수된 541부 가운데 연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사례(40대 미만), 분석에 필요한 값이 결측된 사례, 불성실 응답 자료, 이상치 등을 분석에서 제외하여 결과적으로 411개의 분석자료가 사용되었다.

### 3.2. 조사도구

이 연구에서는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귀농준비 유형 지표 및 관련 특성으로 조사도구를 구성하였다. 관련 특성은 일반적 특성, (이전)직업적 특성, 그리고 귀농 인식 특성으로 구성

된다(<표 2> 참조).

#### 3.2.1. 귀농준비 유형 지표

귀농준비유형화를 위하여 사용되는 요인(지표)은 Knowles (1975)가 언급한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의 과정과 관련이 깊다. 그는 욕구진단, 목표 설정, 자원 파악 등이 자기주도적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 성취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았다. 중장년층의 귀농은 단순한 이주가 아닌 전직이 동반된 생애 전환 사건이며,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학습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정성지, & 마상진, 2021; 정성지, 2022) Knowles의 이론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에 귀농준비에 필요한 요소로 욕구진단 측면에서 귀농 동기(경제적 또는 비경제적)를, 목표 설정 측면에서 고향으로의 귀농 계획, 경제활동 계획, 승계농 여부를, 개인이 지닌 인적 및 물적 자원 파악 측면에서 농촌 출신 여부, 귀농교육, 귀농자금, 귀농네트워크를 구체화하였다.

보다 세부적으로 지표를 살펴보면, 경제적 동기와 관련하여 귀농 동기에 대한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나 크게 경제적 동기 및 비경제적 동기로 구분했을 때,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였다(송인하, 2013; 정성지, & 마상진, 2021). 고향 귀농 계획은 고향으로 귀농을 계획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로 구성된다. 귀농 후 경제활동 여부는 조사대상이 중장년층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은퇴 후 취미활동(취미농)으로 고려하는지, 또는 영농활동과 농외소득을 포함한 경제활동으로 보는지를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승계농 여부는 가족이나 친척 등의 영농기반을 물려받는 지 아니면 취업농이나 창업농을 염두에 두는지를 조사하였다.

개인이 지닌 인적 및 물적 자원 파악 측면에서 농촌 출신 여부는 연고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영농기반이나 인맥과 관련이 깊은 자원 중 하나이다. 또한, 인적 측면에서 귀농교육 시간, 재정적 측면에서 귀농 준비 자금, 사회적 측면에서 귀농네트워크를 포함하였다. 귀농네트워크는 김은경(2016)의 측정도구를 귀농 맥락에 맞게 수정한 정성지(2021)의 검사도구를 활용하였는데(신뢰도 .862), 구체적으로 ‘나는 귀농과 관련하여 조언이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나는 주변에 성공적으로 귀농한 사람을 잘 알고 있다’ 등의 3문항으로 구성된다. 귀농교육 시간을 구분하는 기준은 정부 지원 사업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사업 지원 시 지원 자격인 교육 이수 실적 100시간을 기준으로(귀농귀촌종합센터, 2022b) 100시간 이상 또는 미만으로 코딩하였다. 귀농 준비 자금은 응답값의 중간값인 1억원 이상 및 미만, 귀농네트워크 수준은 평균 이상 및 미만으로 구분하였

다. 귀농준비유형 지표를 측정하는 조사 도구는 모두 0과 1의 이분형 범주로 코딩하여 잠재계층분석에 활용하였다.

### 3.2.2. 귀농 인식 특성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도출한 귀농준비 유형에 따라 귀농 인식 특성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관련 항목을 검토하였다. 귀농 인식 특성은 선행 연구를 토대로 했을 때, 귀농 준비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심리 및 행동적 차원의 인식과 관련된 변인으로 귀농기대(이호길, 2015; 정성지, 2021), 귀농의지(남인현, 2012; 정성지, & 최수정, 2022), 귀농장벽(이희찬, & 김현, 2006; 정성지, 2021; 마상진, 2016)으로 구체화하였다. 귀농기대는 귀농교육 참여자가 현재의 삶에 비해서 귀농했을 때 환경적,

직업적, 사회적 측면에서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를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주관적 가능성을 의미하며, 하위요인은 건강한 환경, 일과 삶 만족, 가까운 관계로 구성된다(정성지, 2021). 귀농의지는 귀농교육 참여자가 귀농에 대해 자발적인 동기를 갖고 귀농을 위해 목표를 유지하고 노력하는 능력으로, 하위요인은 의도, 자기결정성, 주의제어로 구성된다(정성지, & 최수정, 2022). 귀농장벽은 귀농 준비 단계에서 귀농교육 참여자가 인식하는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 또는 제약 여건으로, 경제적 어려움, 절차적 어려움, 그리고 가족 반대로 구성된다(정성지, 2021). 응답자는 귀농장벽이 어렵다고 인식할수록 높게 응답하게 된다(<표 2> 참조).

<표 2> 조사도구의 구성 및 문항

구분	주요 변인	세부문항
귀농준비 요인	농촌 출신	응답자의 고향 소재지 0=중소도시 및 대도시, 1=농촌
	귀농 교육	온라인 및 오프라인 귀농교육 총 이수 시간 0=100시간 미만, 1=100시간 이상
	귀농 자금	귀농을 위한 본인 소유의 자금(임금소득, 퇴직금, 연금 등). 0=1억 미만, 1=1억 이상
	귀농 네트워크	귀농을 준비하며 조인, 도움, 고민 등을 공유할 만한 주변 인적자원의 존재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정성지, 2021). 0=평균 미만, 1=평균 이상
	고향귀농계획	0=타향 소재지 및 미결정, 1=고향 소재지
	경제적 동기	귀농에 대한 주요 동기 0=비경제적 동기(자연환경이 좋아서, 가족 친지와 근접한 거리, 건강상의 이유, 도시생활의 회의감, 자녀교육 등), 1=경제적 동기(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 가업 승계, 실직 또는 사업 실패, 비싼 도시생활비 등)
	경제활동계획	귀농 후 주요 경제활동 형태 0=취미활동(취미농), 1=경제활동(영농활동/농외소득 포함)
인구학적 특성	승계농 여부	귀농 후 영농활동 형태. 0=취농 및 창농, 1=승계농
	성별	0=남성, 1=여성
	연령	0=40대, 1=50대, 2=60대
	결혼 상태	0=미혼 및 이혼, 기타, 1=결혼 및 사실혼
(이전) 직업적 특성	자녀 독립 여부	0=미독립, 1=독립
	최종학력	1=고졸 이하, 2=전문대 졸업, 3=대학교 졸업, 4=대학원 졸업 이상
	퇴직 여부	0=퇴직 및 비경활, 1=근무 중
	일자리	1=자영업, 2=판매 및 서비스직, 3=기술직, 4=사무직, 5=관리직 및 전문직, 6=기타
귀농 인식 특성	직업 만족도	1=전혀 만족하지 않음, 5=매우 만족함
	귀농의지	귀농에 대해 자발적인 의지를 갖고 귀농을 준비하는 조절 능력(5점 리커트)(정성지, & 최수정, 2022) 의도: 귀농을 탐색하고 준비하려는 행위에 대한 결심 상태(3) 자기결정성: 귀농에 대한 동기가 내재화되어 귀농을 준비하는 주체가 본인이라고 인식하는 정도(4) 주의제어: 귀농을 준비하기 위하여 의식적 및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는 수준(5)
	귀농기대	현재의 삶과 비교하여 귀농했을 때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를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주관적 가능성(5점 리커트)(정성지, 2021) 건강한 환경: 귀농했을 때 밀집된 도시에서 벗어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정도(3) 일과 삶 만족: 귀농했을 때 생활 측면에서 만족스러운 일을 하면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 기대하는 정도(4) 가까운 관계: 귀농했을 때 농촌 지역주민과의 관계에서 소속감을 느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정도(4)
귀농장벽	귀농 준비 단계에서 귀농교육 참여자가 인식하는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 또는 제약 여건(5점 리커트)(정성지, 2021) 경제적 어려움: 귀농교육 참여자가 초기 정착에 필요한 농지 구매, 주택 마련 등의 여유 자금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정도(5) 절차적 어려움: 귀농교육 참여자가 귀농인이 되는 데 필요한 농지 및 주택 마련, 농업인 등록, 귀농인 지원 사업 신청 등의 관련 행정적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인식하는 정도(5) 가족 반대: 귀농교육 참여자가 귀농을 준비하는 것을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이 지지하지 않는 정도(4)	



### 3.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두 단계로 분석되었다. 먼저, 중장년층의 귀농준비 요인에 따른 잠재계층을 분류하기 위하여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도출된 귀농준비 유형에 따라서 인구학적, 직업적, 귀농특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잠재계층분석은 기존 연구가 모집단 전체의 평균에 기반을 둔 관계를 추론한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의 서로 다른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개발되었다(오영교, & 차성현, 2018). 이에 잠재계층분석 방법은 유형화라는 목적 측면에서 군집분석과 유사하나 응답자의 응답 패턴에 대한 유사성을 기반으로 각 응답자가 하위집단에 속할 확률을 구하여 집단을 유형화하는 ‘관찰 대상 중심 접근법(person-oriented approach)’을 취한다(Weller et al., 2020). 이 분석의 장점은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는 잠재집단을 분류하고,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지표로 제시하여 객관적인 잠재집단의 도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김사현, & 홍경준, 2010). 또한, 자료의 정규성, 선형성, 분산의 동질성과 같은 가정을 만족하지 않아도 되어 활용도가 높고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다(김수영, 김명일, 장수지, & 문경주, 2017). 구체적으로 잠재계층분석방법은 연구대상이 하나의 패턴을 공유하기보다는 이들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이에 응답자의 응답값의 차이는 서로 다른 패턴을 보여주는 잠재계층 집단의 차이를 가져온다. 이때 이분형 지표의 응답 패턴을 사용한다.

개개인을 동질적인 잠재계층으로 분류하도록 추정하는 방법은 최대우도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후집단소속 확률에 따라서 집단을 구분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응답 패턴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계층의 수를 결정하는 과정은 각 계층의 적합도 지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유형을 판별하는 주요 지표로는 AIC, BIC, saBIC, cAIC, Entropy 등이 존재한다(Akaike, 1974; Sclove, 1987). 일반적으로 로그우도값을 통해 적합도를 산출하는 AIC, BIC, saBIC, cAIC 값은 낮을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있다(김사현, & 홍경준, 2010; 김수영, 김명일, 장수지, & 문경주, 2017). Entropy 지수는 집단의 구분이 명확한지를 나타내는 지수로,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적합한 모형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주요 지표보다는 참고 지표로 간주된다(Jedidi, Ramaswamy, & DeSarbo, 1993). 유형에 대한 모형의 적합도는 통계적인 수치와 함께 이론적으로 타당하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한다(Collins, &

Lanza, 2010).

이후 두 번째 단계에서는  $\chi^2$ 검정, MANOVA 및 ANOVA 검정을 통하여 분류된 잠재계층에 따라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업적 특성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였다. 특히, 귀농기대, 귀농의지, 귀농장벽과 같은 리커트 척도로 이뤄진 변인의 경우, 먼저 MANOVA를 통하여 각 변인의 하위요인 수준이 분류된 귀농준비 잠재계층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검증 시 Wilks' lambda를 활용하였다. 이후 어느 집단에서 각 요인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각 요인별 ANOVA를 실시하여 Sheffe 방식을 적용한 사후분석을 진행하였다. 기초통계분석과  $\chi^2$ 검정, ANOVA 검정, MANOVA 검정은 STATA 14.0 및 SPSS 27.0을 사용하였으며, 잠재계층분석은 poLCA 패키지를 적용한 R 4.2.4를 사용하였다.

## 4. 연구 결과

### 4.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수집된 411명의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에 관한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개인적 특성과 관련하여 연령은 50대, 40대, 60대 순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2배 정도 많은데, 연령과 성별에 있어서 귀농·귀촌실태조사의 표본과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대다수가 혼인상태이며, 자녀가 독립하지 않은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2배 가량 많았다. 최종학력은 대졸,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학원졸 순으로 분포하였다. 일자리 특성과 관련하여 퇴직 및 비경활 집단이 경제활동 집단보다 약간 많은 편이었으며, 직종은 사무·기술직, 자영업, 관리·전문직, 기능·숙련·작업직, 판매·서비스직, 가사 및 기타 순으로 분포하였다. 최종학력과 일자리가 잠정적인 사회적 지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귀농교육 참여자의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고루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 참조).

귀농준비 잠재계층을 구분하는 지표를 중심으로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먼저 귀농정착지에 대하여 타향 및 미결정 집단이 고향 선택 집단보다 2배가량 많았다. 귀농 동기는 비경제적 동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귀농 후 경제활동 계획으로 보았을 때 영농활동과 농업 외 소득활동을 포함해 경제활동을 하려는 집단이 취미나 전원생활을 하려는 집단보다 약 3배 많았다. 대다수는 취농 및 창농의 형태이며, 귀농교육 이수시간은 100시간

미만 집단이 60%, 100시간 이상 집단이 40%를 차지하였다. 귀농자금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3천만원 미만부터 5억원 이상까지 분포했으며, 1억원 이상과 1억원 미만으로 구분했을 때 응답자 수가 고루 분포한 편이다. 귀농네트워크 수준은 평균 이상과 평균 미만으로 구분했으며 고루 분포하고 있다. 요약하면 귀농지 결정에 대해서는 타향 및 미결정, 귀농 동기로는 비경제적 동기, 경제활동 계획으로는 영농 및 농업 외 소득활동, 승계농 여부로는 취농 및 창농의 분포가 지배적인 편으로 나타났다. 그 외 농촌출신, 귀농교육 이수시간, 귀농자금, 귀농 네트워크 수준 등의 준비 자원과 관련된 부분은 일정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표 4> 참조).

이와 함께 귀농 특성에 해당하는 귀농의지와 귀농기대 값의 일반적 분포를 살펴보면, 귀농의지 값은 전반적으로 5점 가운데 평균 4.105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자기결정성, 의도, 주의제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귀농기대 점수 평균은 3.897점으로 보통(3.5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며 건강한 환경, 일과삶 만족, 가까운 관계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귀농장벽 점수 평균은 3.275점으로 다른 변인보다 다소 낮은 편이었으며, 이 가운데 가족반대가 두드러지게 낮은 편이고, 경제적 어려움, 절차적 어려움 순으로 낮았다(<표 5> 참조).

<표 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분포

구분		빈도(백분율)	구분		빈도(백분율)
연령	40대	134(32.6%)	자녀독립	독립	164(39.9%)
	50대	171(41.6%)		미독립	247(60.1%)
	60대	106(25.8%)	퇴직 여부	근무중	185(45%)
성별	남성	279(67.9%)		퇴직 및 비경활	226(55%)
	여성	132(32.1%)	일자리	자영업	96(23.4%)
혼인상태	기혼 또는 사실혼	359(87.3%)		판매·서비스직	42(10.27%)
	미혼/이혼/사별	52(12.7%)		사무·기술직	104(25.43%)
최종학력	고졸이하	108(26.3%)		기능·숙련·작업직	52(12.7%)
	전문대졸	61(14.8%)		관리·전문직	79(19.2%)
	대졸	188(45.7%)	가사 및 기타	36(8.8%)	
	대학원졸	54(13.1%)	구분	평균(표준편차)	
			직업만족도	3.392(0.885)	

<표 4> 귀농준비 요인에 따른 응답자 분포

구분		빈도(백분율)	구분		빈도(백분율)
고향귀농계획	고향	138(33.6%)	농촌 출신	농촌	202(49.1%)
	타향 및 미결정	273(66.4%)		도시	209(50.8%)
경제적 동기	경제적 동기	125(30.4%)	귀농교육 이수시간	100시간 이상	172(41.8%)
	비경제적 동기	284(69.1%)		100시간 미만	239(58.2%)
경제 활동 계획	영농 및 농업 외 소득 활동	314(76.4%)	귀농 자금	1억원 이상	205(49.9%)
	취미농	97(23.6%)		1억원 미만	206(50.1%)
승계농	승계농	54(13.1%)	귀농 네트워크	평균 이상	204(49.64%)
	취농 및 창농	357(86.8%)		평균 미만	207(50.36%)

<표 5> 귀농 인식 특성에 따른 응답자 분포

변인	mean(s.d.)	변인	mean(s.d.)	변인	mean(s.d.)
귀농기대 전체	3.897(0.539)	귀농의지 전체	4.105(0.573)	귀농장벽 전체	3.275(0.616)
건강한 환경	4.171(0.672)	의도	4.170(0.729)	경제적 어려움	3.573(0.915)
일과삶 만족	3.846(0.65)	자기결정성	4.179(0.687)	절차적 어려움	3.615(0.771)
가까운 관계	3.675(0.69)	주의제어	3.967(0.649)	가족 반대	2.578(1.037)

## 4.2. 중장년 귀농준비 잠재집단 확인 및 유형화

### 4.2.1. 중장년 귀농준비 유형 탐색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 준비 지표를 바탕으로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 간에 공변량이 없다는 가정 하에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잠재 집단의 수를 2개(모형2)에서부터 6개(모형6)까지 점차 확장하여 각 집단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집단 수 결정 기준에 따라서 모형 적합도를 비교했을 때, BIC와 cAIC는 모형3 집단까지 그 값이 감소하다 모형4 집단부터 다시 높아지는 추세이며, aBIC는 모형4까지 그 값이 작아지다가 모형5 집단부터 점차 증가하고 있다. Entropy값은 집단 수를 늘릴수록 값이 향상되고 있었다. 값을 종합적으로 비교했을 때, 모형3인 3개 집단의 값이 가장 좋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었다 (<표 6> 참조).

### 4.2.2. 중장년 귀농준비 유형화

통계적 지수를 바탕으로 모형3을 잠재집단으로 결정하고 집단별 사후확률당 평균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먼저, 집단을 살펴보면, 이들은 전체 표본 가운데 26.3%를 차지하고 있고, 농촌 출신이 아닌 중소도시 또는 대도시 출신이며, 귀농교육 이수시간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편이다. 그러나 귀농을 위한 투자 자금은 가장 많은 편이며, 귀농과 관련된 네트워크 수준은 중간인 편으로 나타난다. 흥미로운 점은 농촌출신의 응답자가 적은 편임에도 귀농네트워크 수준은 농촌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은 집단2보다 높다는 점이다. 이는 집단1의 적극적인 귀농준비 행동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들은 농촌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고향으로 귀농하려는 비중이 가장 낮다. 귀농 동기는 경제적 동기와 비경제적 동기를 고루 갖추고 있으며, 귀농 시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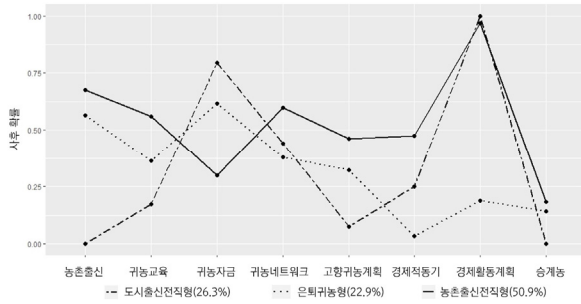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대다수가 도시 출신이기에 승계농이 아닌 취업농 또는 창업농을 계획하고 있다. 집단1에 속한 응답자의 두드러진 특성은 도시 출신이라는 점과 귀농시 경제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영농활동이나 농업의 소득활동 등 경제활동에 대한 의지가 높은 편이면서도 귀농에 대한 경제적 동기와 비경제적 동기를 고루 갖추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에 집단1을 도시출신전직형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2집단은 전체 표본 가운데 22.9%를 차지하고 있어 비중이 가장 적은 편이다. 이들은 농촌 출신 비중이 꽤 높은 편이며, 귀농교육 이수시간, 귀농자금 등 귀농 준비 자원에 대하여 모두 중간 정도의 수준을 보인다. 귀농네트워크 수준은 세 집단 가운데 그 비중이 가장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향으로의 귀농계획 여부에 관하여서는 농촌출신 비중보다는 낮은 수치를 보인다. 집단2의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이들의 주요 귀농 동기가 경제적 동기가 아닌 비경제적 동기라는 것이다. 즉, 귀농의 주요 동기는 자연환경에 대한 선호, 가족 및 친지와의 유대감, 건강상의 이유,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감, 자녀교육 등으로 인한 귀농 동기가 지배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영향으로 귀농 시 경제활동 계획은 집단 중 가장 낮은 편이다. 이를 종합했을 때, 집단2의 특성은 주로 건강 또는 생태적인 동기로 귀농을 하여 농사나 다른 일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기보다는 소일거리나 취미활동으로 귀농을 계획하는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집단2를 은퇴귀농형이라고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3을 확인했을 때, 이들은 50.9%로 전체 응답자 수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농촌출신으로, 귀농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만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으며, 고향으로의 귀농계획 비중 또한 높은 편이다. 이들의 귀농동기는 경제적인 동기가 대부분으로 귀농

<표 6> 중장년 귀농준비 잠재집단의 모형 검증

Model	log-likelihood	resid.df	BIC	aBIC	AIC	cAIC	likelihood-ratio	Entropy	분류율
1	-2033.231	247	4114.611	4089.225	4082.462	4122.611	410.275	-	
2	-1989.354	238	4081.025	4027.080	4012.708	4098.025	322.521	0.431	56.45 43.55
3	-1954.043	229	4064.570	3982.067	3960.087	4090.570	251.900	0.679	26.28 22.87 50.85
4	-1934.805	220	4080.260	3969.198	3939.609	4115.260	213.422	0.688	31.63 23.84 35.77 8.76
5	-1923.380	211	4111.578	3971.957	3934.760	4155.578	190.573	0.749	22.87 21.41 30.41 10.46 14.84
6	-1913.359	202	4145.703	3977.523	3932.717	4198.703	170.530	0.969	28.71 19.95 12.90 20.92 10.46 7.06



〈그림 1〉 중장년 귀농준비 잠재계층의 형태

시 영농활동 또는 농업의 소득활동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소득을 창출하려는 계획을 지닌 응답자가 압도적이다. 준비 자원 측면을 살펴보면,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비중이 모든 집단 가운데 가장 높은 편인데 반해 귀농 준비 자금은 가장 낮은 편이다. 이로 보아 대다수가 농촌 출신으로 구성된 집단3에 속한 응답자들은 귀농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부모나 친척 등으로부터 이어받은 영농기반을 토대로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귀농을 하려는 집단으로 해석된다. 이에 집단3을 농촌출신전직형으로 명명하였다(〈그림 1〉 참조).

### 4.3. 중장년층 귀농준비 유형별 특성

#### 4.3.1. 인구학적 특성

다음으로 각 집단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적으로 각 집단은 연령, 최종학력, 혼인상태, 자녀독립 상태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도시출신전직형의 연령대는 주로 40대가 많은 편이며(60.19%), 이에 비하여 60대의 비중이 극소수인 편이다(7.41%). 은퇴귀농형의 경우 50대와 60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39.36%, 47.87%), 농촌출신전직형의 경우 각 연령대에 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농촌출신전직형은 영농 기반이나 농촌의 인맥이 이미 존재하기에 농촌으로의 이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시출신전직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층에서의 귀농 수요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은퇴귀농형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이 귀농의 주요 목적이 아니므로 연령대가 높은 중고령층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성별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모든 집단에 걸쳐 남성이 여성보다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최종학력을 살펴보면, 도시출신전직형의 주요 최종학력은 대졸이며(60.24%), 은퇴귀농형의 경우 대졸(45.74%)

과 대학원졸(24.47%) 등 고학력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농촌출신전직형은 대졸(37.32%)과 고졸이하(31.1%)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혼인상태 또한 집단별 차이가 발견된다. 대다수가 기혼 또는 사실혼에 속하고 있지만 은퇴귀농형의 경우 기혼 또는 사실혼 비율이 95%에 가깝지만, 농촌출신전직형은 기혼 또는 사실혼 비율이 약 82%로 미혼, 이혼 또는 사별의 비중이 다른 집단에서보다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8.18%). 마지막으로 집단별 차이는 자녀독립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도시출신전직형의 경우 자녀가 독립하지 않은 비중이 73%, 농촌출신전직형의 경우 63.6%로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은퇴귀농형의 경우 37.2%로 대다수 응답자의 자녀들이 독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자녀독립여부는 응답자의 연령대와도 어느 정도 연관성을 보인다. 도시출신전직형이 특히 40대에 집중되어 있는데 반하여 은퇴귀농형은 주로 60대에 집중되어 있기에 자녀독립의 경향성 또한 응답자 연령대 분포를 따르고 있다. 자녀독립여부는 귀농 동기나 귀농 시 경제활동 여부와도 연관이 깊기에 도시출신전직형과 농촌출신전직형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유의미한 정보로 고려된다(〈표 7〉 참조).

#### 4.3.2. 일자리 특성

다음으로 각 집단에 따른 일자리 특성의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퇴직 여부를 살펴보면, 도시출신전직형의 근무 중인 비율이 70%로 가장 높은 편이다. 이에 반하여 은퇴귀농형과 농촌출신전직형의 비율은 각각 36.2%, 35.9%로 나타나 현재 경제활동 여부에 대한 차이가 집단에 따라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퇴직여부가 귀농 준비에 대한 시간적 투자나 귀농 시점과도 연관이 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앞서 잠재계층 지표 가운데 귀농교육 이수시간이 타집단에 비해 낮다는 점이 부분적으로 설명된다. 이들은 귀농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현재 일자리를 가진 상태에서 귀농 준비에 투자할 시간적 여유가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편이다. 반면, 농촌출신전직형이나 은퇴귀농형은 퇴직하거나 비경활인 상태의 응답자가 월등하게 많아 귀농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이나 노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으며 귀농에 대한 기대나 의지 역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자영업(23.47%)과 기능·숙련·작업직(25.43%)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 가운데 도시출신전직형은 특히 자영업이 높은 편이며(25.93%), 기능·숙련·작업직(19.44%), 관리·전문직(18.52%), 판매·서비스직(17.59%)이 고루 분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은퇴귀농형은 특히

기능·숙련·작업직(32.26%)과 관리 전문직의 비중(31.18%)이 높으며, 다음으로 자영업(19.35%), 판매·서비스직(6.45%), 사무·기술직(4.3%)이 뒤를 잇고 있다. 마지막으로 농촌출신전직형의 경우 기능·작업·숙련직(25.48%)과 자영업(24.04%)의 비중이 높고, 사무·기술직(16.35%), 관리·전문직(14.42%), 가사 및 기타(11.54%)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가사 및 기타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나 특히 농촌출신전직형에 가사 및 기타 상태에 속한 응답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다(11.54%).

마지막으로 잠재계층에 따라서 직업만족도 평균의 차이 검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은퇴귀농형(3.695점), 농촌출신전직형(3.468점), 도시출신전직형(2.981점) 순으로 직업만족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도시출신 전직형의 일자리 수준이 두드러지게 낮은 편이었다. sheffe 사후 검증을 실시했을 때,

은퇴귀농형과 농촌출신전직형의 직업만족도 수준이 도시출신전직형의 수준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 4.4. 귀농 인식 특성 차이 분석

마지막으로 귀농준비 잠재집단에 따라서 귀농의지 및 귀농기대의 하위 요인별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귀농기대, 귀농의지, 귀농장벽 각 변인이 다중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요인들이 서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귀농의지 하위척도 점수 외(Wilks lamda=.857, F=10.81, p<.001)와 귀농기대(Wilks lamda=.912, F=6.33, p<.001), 귀농장벽(Wilks lamda=.805 F=15.42, p<.001) 하위요인의 점수 모두 귀농준비 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각 귀농준비 잠재집단이 귀농기대의 하위

<표 7> 중장년층 귀농준비 유형별 인구학적 특성

구분 (단위: n(%))	1. 도시출신전직형	2. 은퇴귀농형	3. 농촌출신전직형	전체	$\chi^2$	
연령	40대	<b>65(60.19%)</b>	12(12.77%)	57(27.27%)	134(32.6%)	74.284***
	50대	35(32.41%)	37(39.36%)	99(47.37%)	171(41.61%)	
	60대	8(7.41%)	45(47.87%)	53(25.36%)	106(25.79%)	
성별	남성	69(63.89%)	64(68.09%)	146(69.86%)	279(67.88%)	1.1654
	여성	39(36.11%)	30(31.91%)	63(30.14%)	132(32.12%)	
최종학력	고졸이하	23(21.3%)	20(21.28%)	<b>65(31.1%)</b>	108(26.28%)	34.539***
	전문대졸	11(10.19%)	8(8.51%)	42(20.1%)	61(14.84%)	
	대졸	<b>67(62.04%)</b>	<b>43(45.74%)</b>	<b>78(37.32%)</b>	188(45.74%)	
혼인상태	대학원졸	7(6.48%)	<b>23(24.47%)</b>	24(11.48%)	54(13.14%)	12.179**
	미혼/이혼/사별	9(8.33%)	5(5.32%)	<b>38(18.18%)</b>	52(12.65%)	
	기혼 또는 사실혼	99(91.67%)	89(94.68%)	171(81.82%)	359(87.35%)	
자녀독립	미독립	<b>79(73.15%)</b>	35(37.23%)	<b>133(63.64%)</b>	247(60.1%)	29.252***
	독립	29(26.85%)	<b>59(62.77%)</b>	76(36.36%)	164(39.9%)	

\*p<0.05, \*\*p<0.01, \*\*\*p<0.001

<표 8> 중장년층 귀농준비 유형별 일자리 특성

구분 (단위: n(%))	1. 도시출신전직형	2. 은퇴귀농형	3. 농촌출신전직형	전체	$\chi^2$ or F	
퇴직 여부	근무중	<b>76(70.37%)</b>	34(36.17%)	75(35.89%)	185(45.01%)	38.061***
	퇴직 및 비경활	32(29.63%)	<b>60(63.83%)</b>	<b>134(64.11%)</b>	226(54.99%)	
일자리	자영업	<b>28(25.93%)</b>	18(19.35%)	<b>50(24.04%)</b>	96(23.47%)	32.435***
	판매/서비스직	19(17.59%)	6(6.45%)	17(8.17%)	42(10.27%)	
	사무/기술직	14(12.96%)	4(4.3%)	34(16.35%)	52(12.71%)	
	기능/숙련/작업직	21(19.44%)	<b>30(32.26%)</b>	<b>53(25.48%)</b>	104(25.43%)	
	관리,전문직	20(18.52%)	<b>29(31.18%)</b>	30(14.42%)	79(19.32%)	
가사 및 기타	6(5.56%)	6(6.45%)	<b>24(11.54%)</b>	36(8.8%)		
직업만족도*	2.981 <sup>a</sup> (0.788)	<b>3.695<sup>b</sup>(0.848)</b>	3.468 <sup>b</sup> (0.877)	3.392(0.885)	19.29***	

\* 직업만족도의 경우 평균비교값이며(mean(s.d.)), F검정 이후 sheffe 사후검증을 시행함.

\*p<0.05, \*\*p<0.01, \*\*\*p<0.001

요인, 귀농의지의 하위 요인 및 귀농장벽 하위 요인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하게 각 하위요인별로 어느 집단이 수준이 높은지를 비교하기 위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귀농기대 전체 수준은 농촌출신전직형(4.006점)과 은퇴귀농형(3.912점)이 도시출신전직형(3.674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건강한 환경의 경우 은퇴귀농형(4.340점), 농촌출신전직형(4.283점), 도시출신전직형(3.808점) 수준으로 높았는데, 사후검증을 통해 은퇴귀농형과 농촌출신전직형이 도시출신전직형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은퇴귀농형 집단의 경우 특히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일과 삶 만족 하위요인과 가까운 관계 하위요인의 경우 농촌출신전직형이 도시출신전직형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귀농의지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귀농의지 전체는 농촌출신전직형(4.243점), 은퇴귀농형(4.069점), 도시출신전직형(3.871점) 순으로 평균 차이가 유의하였다. 의도 요인을 살펴보면, 도시출신전직형(3.910)과 은퇴귀농형(4.056)이 농촌출신전직형(4.355)보다 유의미하게 낮다. 자기결정성의 경우, 은퇴귀농형(4.188점)과 농촌출신전직형(4.299점)이 도시출신전직형(3.939점)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주의제어의 경우, 농촌출신전직형(4.076점)이 도시출신전직형(3.762점)의 주의제어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귀농장벽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를 분해했을 때, 귀농장벽 수준은 전체적으로 은퇴귀농형(3.010점)보다 도시출신전직형(3.401점)과 농촌출신전직형(3.329점)이 높은 편으로,

귀농 후 영농활동을 포함한 경제활동을 계획하는 유형에서 귀농에 대한 어려움 인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은 농촌출신전직형(3.824점)이 도시출신전직형(3.538점), 은퇴귀농형(3.055점) 보다 높았다. 귀농 관련 행정적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인식하는 절차적 어려움의 경우, 농촌출신전직형(3.733점)이 은퇴귀농형(3.370점)보다 그 수준이 높았고, 가족 반대 하위요인에서는 도시출신전직형(3.055점)이 은퇴귀농형(2.545점)이나 농촌출신전직형(2.346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편이었다.

이를 종합하면, 농촌출신전직형의 경우 귀농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의지가 높은 데에는 농촌에 대한 선경험과 영농기반, 귀농네트워크 등 귀농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물질적, 심리적 지원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하여 도시출신전직형의 경우 이러한 기반과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며, 귀농을 위해 투자하는 자금이 많은 편이기에 상대적으로 귀농기대와 귀농의지 수준이 낮으면서 가족 반대 차원의 귀농 장벽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흥미로운 점으로는 농촌출신전직형은 귀농기대와 귀농의지가 높은 편이면서도 동시에 귀농장벽의 경제적 어려움과 절차적 어려움 수준이 높다는 점이다. 농촌출신전직형은 귀농에 대한 접근성이나 농촌으로의 이동성이 높은 편이지만 그와 동시에 경제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9> 참조).

<표 9> 중장년층 귀농준비 유형별 귀농 인식 특성

ANOVA	1.도시출신전직형	2.은퇴귀농형	3.농촌출신전직형	전체	F
귀농기대 전체	3.674 <sup>a</sup> (0.444)	3.912 <sup>b</sup> (0.542)	4.006 <sup>b</sup> (0.55)	3.897(0.539)	14.43***
건강한 환경	3.808 <sup>a</sup> (0.639)	4.340 <sup>b</sup> (0.666)	4.283 <sup>b</sup> (0.623)	4.171(0.672)	24.00***
일과삶 만족	3.692 <sup>a</sup> (0.611)	3.869 <sup>ab</sup> (0.681)	3.916 <sup>b</sup> (0.645)	3.846(0.65)	4.37*
가까운 관계	3.523 <sup>a</sup> (0.55)	3.526 <sup>a</sup> (0.706)	3.820 <sup>b</sup> (0.718)	3.675(0.69)	9.84**
귀농의지 전체	3.871 <sup>a</sup> (0.482)	4.069 <sup>b</sup> (0.594)	4.243 <sup>b</sup> (0.566)	4.105(0.573)	16.46***
의도	3.910 <sup>a</sup> (0.717)	4.056 <sup>a</sup> (0.776)	4.355 <sup>b</sup> (0.662)	4.17(0.729)	15.81***
자기결정성	3.939 <sup>a</sup> (0.663)	4.188 <sup>b</sup> (0.678)	4.299 <sup>b</sup> (0.674)	4.179(0.687)	10.16***
주의제어	3.762 <sup>a</sup> (0.602)	3.961 <sup>ab</sup> (0.666)	4.076 <sup>b</sup> (0.642)	3.967(0.649)	8.61**
귀농장벽 전체	3.401 <sup>b</sup> (0.467)	3.010 <sup>a</sup> (0.764)	3.329 <sup>a</sup> (0.575)	3.275(0.616)	12.42***
경제적 어려움	3.538 <sup>b</sup> (0.722)	3.055 <sup>a</sup> (1.017)	3.824 <sup>a</sup> (0.857)	3.573(0.915)	25.81***
절차적 어려움	3.598 <sup>ab</sup> (0.553)	3.370 <sup>a</sup> (0.876)	3.733 <sup>b</sup> (0.794)	3.615(0.771)	7.46**
가족 반대	3.055 <sup>b</sup> (0.904)	2.545 <sup>a</sup> (1.19)	2.346 <sup>a</sup> (0.946)	2.578(1.037)	18.06***

\*sheffe의 사후분석을 적용하였으며, 동일한 문자를 공유한 경우 신뢰수준 9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값임.

\*p<0.05, \*\*p<0.01, \*\*\*p<0.001

## 5.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중장년층의 귀농준비 유형을 탐색적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 직업적 특성 및 귀농 인식 특성을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Knowles(1975)의 논의를 근거로 귀농 준비 지표를 욕구진단 차원에서 경제적 동기, 자원 파악 측면에서 농촌출신, 귀농교육 이수시간, 귀농자금, 귀농네트워크, 목표 설정 차원에서 고향 귀농계획, 경제활동 계획, 승계농 여부 등으로 구체화하여 잠재계층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3개 집단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은 도시출신전직형, 은퇴귀농형, 농촌출신전직형으로 명명되었다. 또한, 잠재집단별 인구학적 특성, 직업적 특성, 및 귀농 인식 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첫째, 귀농준비 지표를 활용했을 때, 중장년층의 귀농준비 유형은 도시출신전직형, 은퇴귀농형, 농촌출신전직형 3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특히 유형을 구분하는 데 있어 두드러지는 지표는 농촌출신여부와 귀농후경제활동 계획이다. 귀농을 준비하는 데 있어 농촌 출신 여부는 영농 관련 기반, 정보적 교류, 사회적 지지 등의 다양한 필요 자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한다(정성지, 2021). 선행연구에서도 농촌 출신인 U형 또는 J형의 경우 도시 출신인 I형에 비하여 농촌 거주 경험, 영농 경험, 농촌 인지 수준 등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박공주, 2006). 또한, 귀농 후 경제활동 유형(영농활동/농업의 소득활동 또는 취미농)에 따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귀농 유형이 크게 경제적 유형과 비경제적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점(송인하, 2013; 정성지, & 마상진, 2021)과 더불어 퇴직과 건강상태가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중장년층의 생애 단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응답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촌출신전직형(50.9%)은 대다수가 농촌 출신이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영농활동을 포함한 경제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대다수가 농촌출신이라는 점에서 귀농네트워크가 높은 편이며, 고향으로의 귀농 가능성이 높고, 가족이나 친척의 영농 기반을 이어받는 승계농의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반면, 귀농자금 측면에서는 가장 수준이 낮은 편으로 보아 경제적 투자보다는 농촌 출신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자신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원과 기반을 바탕으로 귀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농촌에서의 연고가 형성된 상태에서 적은 이주자금을 가지고 귀농하는 J턴과 U턴의 귀농 패턴과 유사한 측면을 공유한다(박공주, 2006).

다음으로 도시출신전직형은 다른 두 집단과 다르게 도시출신

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이 뚜렷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도시출신전직형은 농촌출신전직형과 유사하게 경제활동에 대한 계획이 확고하지만, 귀농 동기 측면에서 경제적 동기와 비경제적 동기 비중이 고루 높다는 점이 두드러진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대안가치형(마상진, 2018), 생태가치 귀농인(송인하, 2013), 농촌지향형(유학열, 2011) 등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도시출신전직형은 귀농준비에 필요한 귀농교육이 가장 낮은 수준이면서 귀농자금이 타 집단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농촌출신에 비하여 농촌 관련 경험, 영농 기술, 정보, 농촌마을에 대한 연구 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귀농 자금을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승계농이기보다 창업농이나 취업농으로 귀농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가장 적은 분포를 차지하는 은퇴귀농형은 농촌출신 응답자가 많은 편이면서 귀농의 주요 동기는 자연환경이 좋아서, 가족 친지와 근접한 거리, 건강상의 이유 등 비경제적인 부분이 압도적이며 귀농 후 경제활동을 계획하는 응답자 비중이 가장 적다. 은퇴귀농형은 귀농준비에 필요한 교육과 자금은 중간 정도이며, 귀농네트워크는 가장 낮은 편이다. 이러한 유형은 전원형(이민수, & 박덕병, 2012), 은퇴귀농형(유학열, 2011), 생활효용형(김철규, 이해진, 김기홍, & 박민수, 2011), 은퇴전원형(마상진, 2018; 정성지, & 마상진, 2021) 등과 함께 비교될 수 있다.

둘째, 중장년층 귀농준비 유형은 인구학적 특성과 직업적 특성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은퇴귀농형의 경우 연령대가 높고 자녀가 대다수 독립하였으며, 고학력이며 전문직 및 관리직 출신이 많은 편이다. 이 집단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편으로 안정적인 주된 일자리를 갖다가 자녀가 독립하면서 퇴직을 하고 이동성이 높은 상태에서 고향인 농촌을 찾아 귀농할 가능성이 크다. 송인하(2013)의 연구에서도 경제활동을 종료한(은퇴) 귀농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전직) 귀농인에 비하여 더 안정적인 직업력을 가지며, 이에 경제적 동기보다 생태적 동기가 귀농 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마상진(2018)의 연구 또한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은퇴전원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지하고 있다. 이로 보아 은퇴귀농형의 귀농 주된 동기가 비경제적 요소인 이유에 대하여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 배경을 지니며, 연령대에 따라 생애 단계 과업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도시출신전직형의 경우 연령대가 다른 집단보다 가장 낮은 편이며, 자녀가 독립하지 않은 응답자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활동에 참여 중인 응답자가 70% 넘게 차지하며,

자영업을 비롯한 다양한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다. 눈여겨볼 점은 귀농준비 집단 중에서 직업만족도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은 편으로, 주된 일자리에서 경험한 낮은 만족도가 직업의 전환과 농촌으로의 이주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농촌출신전직형은 연령대가 다소 고르게 분포해 있으나 자녀가 독립하지 않은 응답자가 많다는 점에서 귀농 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농촌출신전직형은 최종학력이 고졸이 아닌 응답자가 특히 많은 편이다. 이는 농촌출신 집단에 학력이 낮은 응답자가 분포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박공주, 2006). 미혼이나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다수가 농촌출신으로 구성된 이 집단은 가족이나 친척의 연고, 영농기반, 농촌 거주 경험 등을 고루 갖추고 있어(송인하, 2013) 학력이 낮거나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귀농의 수요와 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중장년층 귀농준비 유형에 따라 귀농기대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전체적으로 귀농기대 수준은 농촌출신전직형과 은퇴귀농형이 도시출신전직형보다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대다수가 농촌출신으로 구성된 두 집단의 경우 어렸을 적 농촌에서 경험한 사건이나 장소에 대한 애착 등이 높아 귀농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Stockdale, & MacLeod, 2013). 구체적으로 일과삶 만족과 가까운 관계 하위 요인의 경우 농촌출신전직형이 도시출신전직형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농촌출신전직형의 경우 이전의 농촌 거주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농업을 통해 경험하는 일의 자율성과 자연 환경이 도시에서의 밀집된 업무 환경보다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농촌출신전직형은 가까운 관계에 대한 기대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는데, 이는 고향의 친인척과의 연고가 형성되어 있어 타향 선택 집단보다 귀농 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최윤지, 황정임, & 신호연, 2014). 한편, 건강한 환경에 대해서는 은퇴귀농형의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생애 단계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해석되며(TheLine, & Holmberg, 2010; Bures, 1997), 경제적 동기보다 생활상 편의와 효용 등 비경제적 동기를 추구하는 이들의 귀농 동기외도 밀접하게 맞닿아있다고 볼 수 있다(송인하, 2013; 김철규, 이해진, 김기홍, & 박민수, 2011).

넷째, 중장년층 귀농준비 유형에 따라 귀농의지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농촌출신전직형의 수준이 다른 두 유형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데에는 이들의 농촌 거주 경험, 영농 경험과 기반, 연고 등 출발점 수준이 높다는 점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농촌출신전직형은 대다수가

퇴직을 하거나 비경황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귀농을 준비하는데 투자할 에너지와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편이다. 이에 귀농 준비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주어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귀농하려는 의지가 높은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박공주, 2006; 김백수, 2013). 반면 도시출신전직형은 농촌 관련 경험과 귀농 네트워크, 영농 기반, 영농 기술 등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귀농에 대한 의사결정이 쉽지 않고, 이에 뚜렷한 의지를 지니기보다 중장기적으로 귀농을 탐색하면서 퇴직 후 일자리 중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다(정성지, 2021). 도시출신전직형의 귀농 투자 자금이 높다는 점 또한 귀농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의지보다는 귀농 결정을 유보하거나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중장년층 귀농준비 유형에 따라서 귀농장벽 수준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이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과 절차적 어려움의 경우 특히 농촌출신전직형에서의 수준이 다른 유형보다 더 두드러지는 편이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은 귀농 과정 가운데 가장 주요하게 다뤄지는 장벽 요인으로(이지흠, 2017; 이희찬, & 김현, 2006) 귀촌보다 귀농을 계획하는 집단에서 여유자금 부족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마상진, 2016). 박공주(2006)의 연구에서는 농촌 출신인 U턴이 도시 출신인 I턴보다 이주 자금이 유의미하게 적다는 점을 발견하였는데, 이 연구의 결과 또한 선행연구를 지지한다. 절차적 어려움이 농촌출신전직형에서 높게 나온 데에는 농촌 연고가 상대적으로 귀농에 대한 접근성과 농촌 지역으로의 이동성을 높게 만들지만 이에 비하여 농업인 등록, 농지원부 등록, 귀농인 지원 사업 신청 등의 절차가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자녀 양육, 교육, 직장 등으로 인한 가족의 귀농 반대는 귀농 결정이나 준비에 장벽으로 작용하는데(김은석, & 하지영, 2016; 이희찬, & 김현, 2006; 김백수, 2014), 상대적으로 관련 인맥이나 연고, 영농 기반이 부족한 도시출신전직형에서 특히 가족과의 반대가 주요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족 반대가 장기화되는 경우 귀농을 포기하거나 1인 이주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는 정착과 적응 과정에서 또 다른 어려움을 만들어 역귀농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 방안이 요구된다.

연구 결과 및 논의를 토대로 교육현장을 위한 실천적인 제언으로써 귀농준비 유형에 따른 다각화된 귀농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도시출신전직형의 경우, 농촌 거주 경험, 농촌 연고나 인맥, 영농 기술 및 기반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자금을 투자하려는 특성을 보인다. 이들에게는 베테랑 귀농인이나 농업인을 1:1로 매칭함으



로써 귀농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고, 다양한 실패 사례나 성공 사례를 접하여 한정된 자원을 신중하면서 합리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엇보다 가족 반대의 수준이 높기에 귀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과의 원활한 소통, 공감대 형성, 공유된 목표와 실현가능한 계획,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 매칭될 필요가 있다.

한편, 농촌출신전직형은 경제적 동기를 지니고 고향으로 귀농하려는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주요 작목을 중심으로 귀농 교육 프로그램을 연결하고, 주어진 인맥, 연고, 기술, 경험 등의 자원 가운데 상대적으로 적은 귀농 준비 자금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귀농 동기와 기대에 비하여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농업소득 구조의 대내외적 취약성으로 인해 귀농 후 가계재생산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농촌사회 적응에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귀농 지원 정책은 귀농인의 귀농 유인기를 형성하는 지원책에서 이들의 농촌사회 적응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으며, 영농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농촌 자원이나 농외 활동을 통한 소득 창출을 병행하는 방법이 제안된다. 마지막으로 은퇴귀농형은 건강이나 여가 등의 개인의 효용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활동에 관심이 많다. 또한, 다른 집단에 비하여 귀농네트워킹이 낮은 편이므로 귀농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만나게 된 수강생이나 교수자와의 네트워킹을 형성하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사한 동기와 기대를 공유하는 귀농교육 참여자 또는 귀농 공동체와의 네트워킹을 통하여 각 관심사와 밀접한 귀농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부합하는 귀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 및 논의를 토대로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귀농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수집되었기에 전체 중장년 귀농 교육 참여자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모집단의 특성을 표본에 할당하는 할당 표집을 통하여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셋째, 이 연구는 중장년층에 초점을 두었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청년층 귀농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귀농준비 유형을 유형화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 넷째, 추가적으로 해당 유형의 추적 조사를 통하여 각 귀농준비 유형의 귀농적응 양상을 분석하는 연구가 시도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1. 강대구. (2006). 귀농자의 귀농유형별 영농정착과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8(2), 23-53.
2. 강대구. (2007). 귀농동기에 따른 귀농정착과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9(1), 59-98.
3. 귀농귀촌종합센터. (2022a). 귀농귀촌맞춤형공모교육. Retrieved May 2, 2022. <https://www.returnfarm.com:444/cmn/returnFarm/module/eduAkademy/publicEducation.do>
4. 귀농귀촌종합센터. (2022b).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Retrieved June 15, 2022. <https://www.returnfarm.com:444/cmn/sym/mnu/mpm/1030101/htmlMenuView.do>
5. 김백수. (2013). 귀농인의 농촌사회 적응에 대한 생태체계적 분석. *전남대학교 국내박사학위논문*.
6. 김사현, & 홍경준. (2010). 잠재집단분석방법을 통한 서울시민의 복지태도 연구. *사회복지정책*, 37(2), 95-121. doi:10.15709/hswr.2017.37.2.251
7. 김수영, 김명일, 장수지, & 문경주. (2017).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활용한 한국 노인의 건강증진 행위 유형화와 영향요인 분석. *보건사회연구*, 37(2), 251-286. doi:10.15709/hswr.2017.37.2.251
8. 김은경. (2016). 개인적 경력지향성과 노후준비도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 김은석, & 하지영. (2016).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귀촌 선택 동기와 준비경험: 대졸 남성 퇴직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6(2), 419-442.
10. 김정섭, & 김종인. (2017). 귀농·귀촌 인구 전망과 정책 방향. *농촌지도와 개발*, 24(1), 33-48. doi:10.12653/jecd.2017.24.1.0033
11. 김철규, 이해진, 김기홍, & 박민수. (2011).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발전방안연구*. 서울: 농림축산식품부 연구보고서.
12. 남인현. (2012). 도시근로자의 귀농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3. 농림축산식품부. (2021). 2020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동 기관.
14. 농림축산식품부. (2022).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Retrieved April 26, 2022. <https://www.mafra.go.kr/mafra/1080/suview.do>
15. 마상진, & 김강호. (2014). 농촌주민의 평생학습 참여결정 요인 분석. *농촌경제*, 37(3), 101-124. doi:10.36464/jr

- d.2014.37.3.005
16. 마상진, & 남기천. (2015). 귀농·귀촌인의 경제활동유형별 관련 요인 탐색. *농촌사회*, 25(1), 89-124.
  17. 마상진, & 박대식. (2019). 귀농·귀촌의 역사적 고찰과 시사점. *농촌사회*, 29(2), 7-32. doi:10.31894/JRS.2019.10.29.2.7
  18. 마상진. (2016). *귀농·귀촌 무엇을 어려워하는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서. pp. 247-271.
  19. 마상진. (2018). 귀농·귀촌 동기 유형과 관련 변인.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0(1), 53-72. doi:10.23840/agehrd.2018.50.1.53
  20. 맹대환. (2022). 베이비붐세대 10명 중 6명 귀농·귀촌 의향. 뉴시스 Retrieved April 24, 2022. [https://mobile.n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413\\_0001831364](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413_0001831364)
  21. 문옥표. (2000). 그린 투어리즘의 생산과 소비: 일본 군마현 편포촌의 '총합교류터미널' 사례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10, 205-232.
  22. 박공주. (2006).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이주 준비 및 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국내박사학위논문.
  23. 박시현, & 최용욱. (2014). *귀농 귀촌 요인과 농촌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주: 농촌경제연구원.
  24. 박유순, & 최은수. (2017). 성인교육에서 교수리더십, 학습동기, 학습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귀농·귀촌 학습자를 중심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24(1), 21-31. doi:10.12653/jecd.2017.24.1.0021
  25. 서규선, & 변재면. (2000). U턴 귀농자 장·단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농촌지도학회지*, 7(1), 137-153.
  26. 송인하. (2013). 생태가치 귀농인의 농촌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7. 오영교, & 차성현. (2018). 대학생의 진로도구준비 유형 분석: 잠재계층분석방법 (Latent Class Analysis) 을 활용하여. *통계연구*, 23(3), 39-64. doi:10.22886/jkos.2018.23.3.39
  28. 우성호, & 이성근. (2015). 귀농·귀촌의 의사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22(2), 101-116. doi:10.12653/jecd.2015.22.2.0101
  29. 유학열. (2011). 충남지역 귀농·귀촌의 실태 및 유형별 특징. *열린충남*, 54, 18-25.
  30. 윤순덕, 최정신, 마상진, & 남기천. (2017). 귀농·귀촌패널로 본 역귀농·귀촌실태. *농촌사회*, 27(1), 59-93. doi:10.31894/JRS.2017.06.27.1.59
  31. 이민수, & 박덕병. (2012). 도시민의 귀촌행태 유형화와 시사점. *농촌지도와 개발*, 19(4), 1137-1170. doi:10.12653/jecd.2012.19.4.1137
  32. 이정관. (1998). 귀농자의 영농정착과 관련된 특성분석.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3. 이지훈. (2017). 귀농 귀촌에서 귀농만족과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호서대학교 국내박사학위논문.
  34. 이해진, & 김철규. (2013). 대안가치지향 귀농·귀촌인의 사회적 특성과 역할. *농촌사회*, 23(2), 49-90.
  35. 이호길. (2015). 도시민의 농촌관광 체험이 귀농귀촌 기대에 미치는 영향. *Tourism Research*, 40(3), 103-123.
  36. 이희찬, & 김현. (2006). 도시민의 농촌지역 이주의향에 관한 연구. *농어촌관광연구*, 13(2), 127-149. doi:10.23840/agehrd.2011.43.2.75
  37. 정성지, & 마상진. (2021). 귀농·귀촌인의 농촌사회 적응, 무엇이 결정하는가?-귀농·귀촌 동기와 직업만족을 중심으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3(1), 1-27. doi:10.23840/agehrd.2021.53.1.1
  38. 정성지, & 최수정. (2022). 귀농준비자의 귀농의지 검사 도구 개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4(1), 1-26. doi:10.23840/agehrd.2022.54.1.1
  39. 정성지. (2021).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학습경험과 귀농준비 특성이 귀농의지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0. 최돈우, 김동춘, 이항아, & 임청룡. (2019). 도시민 귀농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농촌계획*, 25(3), 29-36. doi:10.7851/Ksrp.2019.25.3.029
  41. 최윤지, 황정입, & 신효연. (2014). 귀농정착자의 정주만족도 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5(3), 321-338. doi:10.7856/kjcls.2014.25.3.321
  42. Akaike, H. (1974). A new look at the statistical model identification. *IEEE Transactions on Automatic Control*, 19(6), 716-723. doi:10.1109/TAC.1974.1100705
  43. Bosworth, G., & Bat Finke, H. (2020). Commercial counterurbanisation: A driving force in rural economic development. *Environment and Planning A: Economy and Space*, 52(3), 654-674. doi:10.1177/0308518X19881173
  44. Bures, R. M. (1997). Migration and the life course: Is there a retirement trans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opulation Geography*, 3(2), 109-119. doi: 10.1002/(SICI)1099-1220(199706)3:2<109::AID-IJPG65>3.0.CO;2-I
  45. Collins, L. M., & Lanza, S. T. (2010). *Latent class and latent transition analysis: With applications in the social, behavioral and health sciences*. New York: Wiley. doi: 10.1002/9780470567333
  46. Dobryagina, N. (2017). *Decision theory application in*

- agricultural entrepreneurship promotion*. Working paper. Rome: Sapienza Università di Roma.
47. Dobryagina, N. (2019). Agricultural entrepreneurship motivation policies: European Union experience and decision theory appli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Rural Management*, 15(1), 97-115. doi: 10.1177/0973005219834739
  48. EU. (2022.). 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sustainability’. Retrieved from <https://ec.europa.eu/eip/agriculture/en/european-innovation-partnership-agricultural>
  49. Farrell, C. (2014). *Unretirement: How baby boomers are changing the way we think about work, community, and the good life*. New York: Bloomsbury Press.
  50. Hoffmann, E. M., Konerding, V., Nautiyal, S., & Buerkert, A. (2019). Is the push-pull paradigm useful to explain rural-urban migration? A case study in Uttarakhand, India. *PloS One*, 14(4), e0214511. doi:10.1371/journal.pone.0214511
  51. Jedidi, K., Ramaswamy, V., & DeSarbo, W. S. (1993). A maximum likelihood method for latent class regression involving a censored dependent variable. *Psychometrika*, 58(3), 375-394. doi:10.1007/BF02294647
  52. Knowles, M. S.(1975). *Self-directed learning: A guide for learners and teachers*. Chicago, IL: Follett Publishing Co. <https://doi.org/10.1177/105960117700200220>
  53. Ranyard, R. (2005). Decision making strategies. B. S. Everitt and D. C. *Encyclopedia of statistics in behavioral science* (pp. 466-471). Chichester: John Wiley & Sons. doi:10.1002/0470013192.bsa652
  54. Sclove, S. L. (1987). Application of model-selection criteria to some problems in multivariate analysis. *Psychometrika*, 52(3), 333-343. doi:10.1007/BF02294360
  55. Stockdale, A., & MacLeod, M. (2013). Pre-retirement age migration to remote rural areas. *Journal of Rural Studies*, 32, 80-92. doi:10.1016/j.jrurstud.2013.04.009
  56. Stockdale, A., MacLeod, M., & Philip, L. (2013). Connected life courses: Influences on and experiences of ‘midlife’ in-migration to rural areas. *Population, Space and Place*, 19(3), 239-257. doi: 10.1002/psp.1709
  57. Sutherland, L. (2015). *EIP-AGRI focus group new entrants into farming: Lessons to foster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Discussion Paper. Bruxelles: EIP-AGRI Service Point.
  58. Thelin, A., & S. Holmberg. (2010). ‘Farmers and Retirement: A Longitudinal Cohort Study’. *Agromedicine*, 15(1), 38-46. doi:10.1080/10599240903389623
  59. Weller, B. E., Bowen, N. K., & Faubert, S. J. (2020). Latent class analysis: A guide to best practice. *Journal of Black Psychology*, 46(4), 287-311. doi:10.1177/0095798420930932

Received 18 May 2022; Revised 10 June 2022; Accepted 20 June 2022



Dr. Seong Ji Jeong is a Post Doctoral Scholar at the Ohio Education Research Center at Ohio State University, the United States.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agricultural entrepreneurship, agricultural literacy, agricultur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Address: 250B Page Hall 1810 College Road Columbus, OH 43210 E-mail: [jeong.419@osu.edu](mailto:jeong.419@osu.edu) phone: +1-614-247-9295